

## 보도자료

2011년 6월 2일(목)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최성호 과장(☎750-2550)  
통신이용제도과 이영철 사무관(☎750-2551) bytheway@kcc.go.kr

#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 발표

- SKT 기본료 1천원 인하, 문자(SMS) 50건 무료 제공, 스마트폰 선택요금제 등 시행 -
- 1인당 연 2만8천원(4인 가구 기준, 연 11만4천원) 절감 기대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최시중)는 물가안정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 TF 결과와 아울러 그동안 인가사업자(SKT)를 중심으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을 2일 발표하였다. 이번에는 인가사업자의 방안이 발표가 되었지만 향후 타사업자도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사의 인하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그 동안 저소득층 요금감면('08년), 초단위 과금 도입, 가입비 인하('09년)을 발표하는 등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물가부담 등의 상황과 스마트폰 보급확대에 따른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의 보다 편리한 이용이 통신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가계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통신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그동안 20년 동안의 유선통신망 개방과 10년 동안의 이동통신 망개방을 통해 통신산업과 인터넷산업의 성장과 발전이 앞으로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도입과 데이터폭증에 대비한 망 고도화와 ICT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여력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인하방안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방안의 주요내용은 전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1천원 인하하고 문자(SMS) 50건을 무료 제공하게 된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음성·문자데이터를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량에 맞게 각각 가입하고 요금할인도 제공하는 스마트폰 선택형 (맞춤형) 요금제가 마련되게 된다.

그 외에도 음성 소량이용자를 위해 선불요금 인하(4.8원/1초→4.5원/초)와 결합상품에서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인하한다.

사업자(SKT) 자료에 따르면 연 7,500억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인당 연 2만8천원(4인가구 기준 연 11만4천원)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이번 요금인하를 국회, 여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통신요금 TF활동 결과인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을 토대로 재판매 사업자(MVNO)시장 진입, 블랙리스트 제도개선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 감경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무선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투자를 위한 환경 조성도 병행추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이 어려운 점이 있어 계약체결시 요금제, 선택 사항 등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끝.

- < 붙임 1 > 그 간의 통신요금 인하 내용
- < 붙임 2 > 소비자 물가 및 가계통신비
- < 붙임 3 > 스마트폰 가입자 추이

[붙임 1]

그 간의 통신요금 인하 내용

연도	주요 내용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 1건당 30원 → 20원(1월, 이통3사)</li> <li>○ 망내할인 확대 : 50%→80%(3월, S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추가15%, 3~5년 추가20%, 5~10년은 추가25%, 10년 이상 추가30%</li> </ul> </li> <li>○ 가족형 할인 도입 : 가족간 통화시 통화료 최대 50%할인(4월)</li> <li>○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 감면대상자 및 감면액 확대(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15세이하, 65세이상→전체, 차상위계층)</li> <li>- 감면액 : 기초(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 50%감면), 차상위(1가구당 4인까지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li> </ul> </li> <li>○ 결합판매 심사 간소화 : 결합상품 요금심사면제 할인율을 10%→20%확대(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5월에는 20%→30%로 확대</li> </ul> </li> <li>○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 도입(10월)</li> </ul>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비 인하(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KT(55,000원→39,600원), KT(30,000원→24,000원) (모두 부가세 포함)</li> </ul> </li> <li>○ 초단위 과금 도입 발표: 과금단위 10초→1초로 변경(SKT)</li> <li>○ 선불요금제 인하 : 선불제 요율 인하(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T(1초당 6.2원→4.8원), KT(5.8원→4.9원), LGU+(6.5원→4.9원)</li> </ul> </li> <li>○ 초다량요금제 도입(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T(월 110,000원, 음성 15,000분 제공), KT(기본료 97,000원, 망내통화 무제한)</li> </ul> </li> <li>○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통3사 정액제 요금 인하 및 데이터량 확대, KT 스마트폰 종량요금 인하</li> </ul> </li> <li>○ 청소년 요금제 개선(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T(음성, 문자, 무선데이터가 포함된 월정액 요금제), KT(음성요금 15원→10원 인하 등)</li> </ul> </li> <li>○ FMC 요금제, 결합상품 출시(12월)</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당과금 시행 : SKT(3월), KT·LGU+(12월 시행 예정)</li> <li>○ 실버요금제 개선 : 기존 요율 인하 및 무료통화량 확대(5월)</li> <li>○ 발신자 번호표시(CID) 전면 무료화(9월)</li> <li>○ 무선데이터 요금제 개선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성+문자+데이터 통합한 정액요금제 출시 및 무료인 WiFi 이용</li> <li>- 인터넷직접접속요금 인하(1.5원/0.5Kbyte당→0.25원/0.5Kbyte당, SKT)</li> <li>- 정액제 데이터 잔여량 이월제 도입(KT, 6월)</li> <li>- 하나의 데이터 요금 가입으로 스마트폰·노트북 등 단말의 종류나 숫자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 도입(KT 5월, SKT, 7월)</li> <li>-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허용(SKT 8월, KT·LGU+ 10월)</li> </ul> </li> </ul>

※ 인하액 : '08년 9천2백억원, '09년 1조7천억원, '10년 3조9천5백억원으로 총액 6조6천억

[붙임 2]

소비자 물가 및 가계통신비 관련

□ 소비자 물가 지수

- '05년 이후 '11년 1Q까지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는 19.7P 상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는 6.7P 하락
- 기본분류 12개 항목(식료품, 주거, 교통, 교육 등) 중 통신은 유일하게 감소

〈 기본분류별 소비자 물가지수('05년=100 기준) 〉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Q
전체	100.0	102.2	104.8	109.7	112.8	116.1	119.7
통신	100.0	98.7	96.7	95.3	95.2	94.3	93.3

□ 가계통신비 추이

- 스마트폰 보급확산 및 이용량 증가 등으로 통신비 지출은 다소 증가하나,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가계통신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가계통신비 비중은 '07년 6.66%에서 '11년 1분기 5.68%로 0.98P 감소(전국 전체가구 기준)

〈 명목가계통신비 추이(전국 전체가구 기준) 〉

구분	'07	'08	'09	'10		'11. 1Q
				1Q	전체	
소비지출(원)	2,015,909	2,114,217	2,149,184	2,338,442	2,286,874	2,439,375
통신비(원)	134,287	133,984	132,468	137,038	138,646	138,603
통신비 비중	6.66%	6.34%	6.16%	5.86%	6.06%	5.68%

※ 통계청 자료

[붙임 3]

스마트폰 가입자 추이

□ 스마트폰 가입자 현황

- (전체가입자) 4,800만명('09.12월)→5,151만명('11.4월)으로 증가
- (스마트폰 가입자) 80만명('09.12월)→1,145만명('11.4월)으로 증가
  - 스마트폰 가입자 중 정액요금제 가입자는 약86% 수준

구 분	'09.4Q	'10.4Q	'11.1월	'11.3월	'11.4월
총가입자(만명)	4,794	5,077	5,098	5,137	5,151
스마트폰 이용자(만명) (비중 %)	81 (2)	722 (14.2)	826 (16.2)	1,038 (20.2)	1,145 (28.1)